

Weekly Market Report

본 리포트는 해운시황 이해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Summary



Drybulker

명절이 풍년



Tanker

유지보수가 유형



Container

중동, 남미 항로 반등



Sale & Purchase

라마단 기간 해체선 거래 부진

Macro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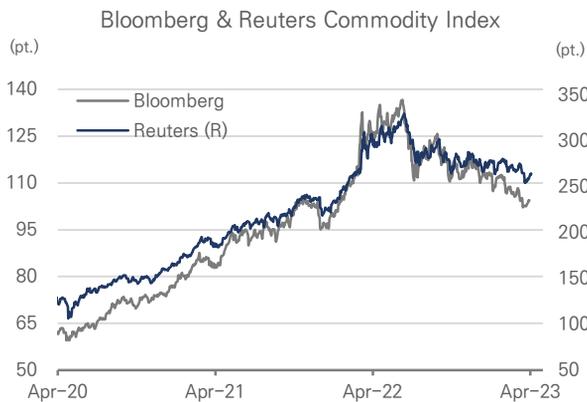
Foreign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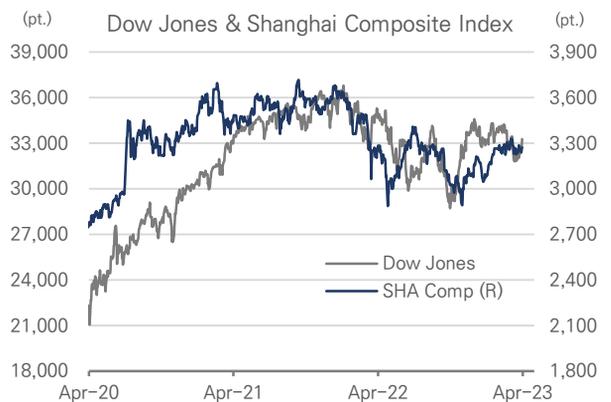
Interest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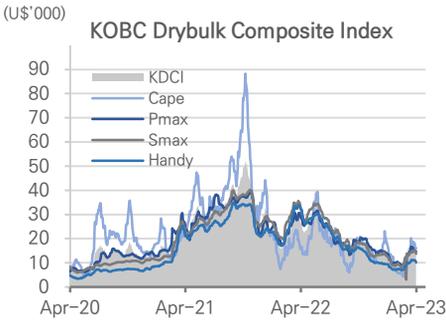


Commodit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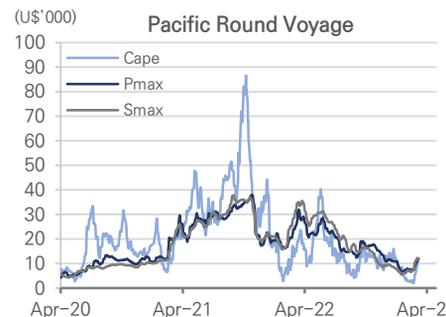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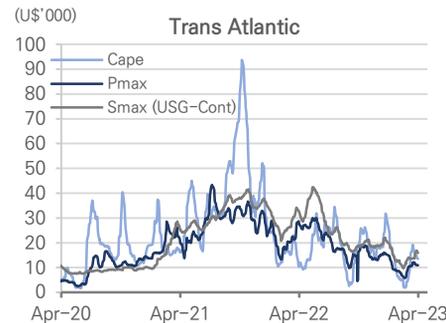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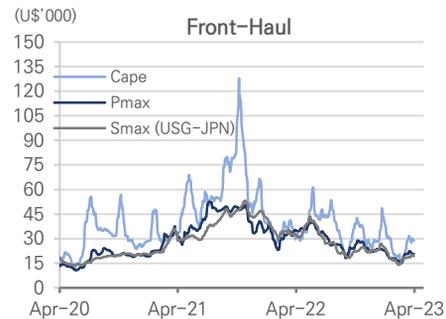


Stock Market





		3/31	3/24	증감
KDCI		14,367	15,786	▼ 1,419
Cape	평균	16,071	18,479	▼ 2,408
	F/H	29,025	30,188	▼ 1,163
	T/A	13,460	14,950	▼ 1,490
	Pac RV	13,596	17,500	▼ 3,904
P'max	평균	14,753	15,292	▼ 539
	F/H	20,632	20,992	▼ 360
	T/A	10,920	11,208	▼ 288
	Pac RV	14,337	15,086	▼ 749
S'max	평균	13,732	15,155	▼ 1,423
	F/H	19,142	20,005	▼ 863
	T/A	15,857	16,056	▼ 199
	Pac RV	12,491	14,395	▼ 1,904



Cape 청명절 연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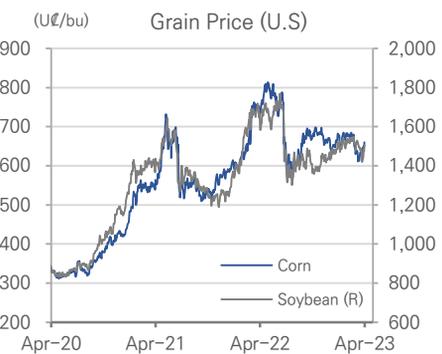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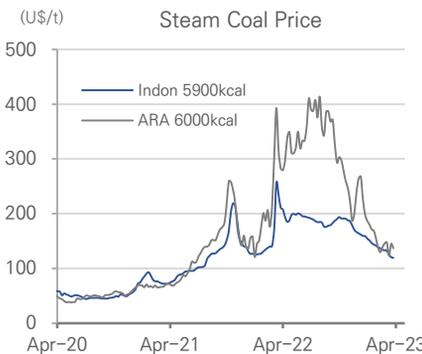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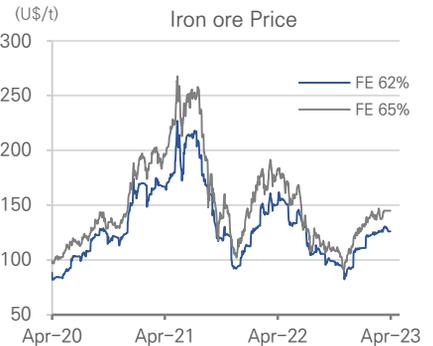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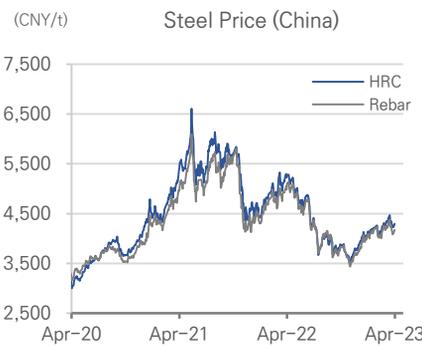
- 중국 정부가 올해 조강생산량을 작년 대비 2.5% 감축시킬 것이라는 루머가 꾸준히 회람되자 제철소들의 원료 확보 지연에 따른 수요 유입 둔화가 나타나며 하락
- 중국의 올 1~2월 조강생산량은 1.69억톤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하였으며, 3월에도 유사한 수준의 증가가 예상됨
 - 연간 2.5% 생산량 감축이 실시될 경우 4월 이후 금년 잔여기간 중 조강생산량 대폭 감산이 요구되어 철광석 수요 또한 둔화가 우려됨
 - 4/3~5일 기간 중국의 청명절 연휴를 앞두고 시장 활동성이 둔화된 점도 시황 하락 요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철강 수요는 4월 성수기를 맞아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철강협회 회원사들의 3/11~20일 기간 일 평균 조강생산량은 이전 열흘 대비 4.7% 증가한 225만톤으로 '22.6월 이후 최고치 기록. 철광석 항만 재고량도 1.35억톤으로 5주 연속 감소
- 다만 중국 정부의 연간 조강생산량 감축 시행이 확정될 경우, 철광석 수요 위축에 따른 운임시장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

Panamax 믿을 곳은 브라질 뿐

- 브라질 곡물의 선박 수요가 왕성하게 유지되며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 약세가 추가 상승을 제한
- 브라질의 올 시즌 대두 수출량은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대두 수확이 70%에 육박하며 물량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음
 - 반면 아르헨티나는 가뭄으로 인한 대두 생산량 급감에 더해, 곡물 검사원 노조가 3/30일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여 수출 물동량 유입이 추가 위축됨
-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해 두차례 실시했던 Soy dollar(대두 수출에 특혜 관세 적용) 정책을 4월 한달간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동 정책이 도입될 경우 다소간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생산량 감소 및 파업의 영향으로 대폭의 물량 증대는 어려울 것
- 당분간 브라질 대두 수출 강세에 따라 운임 시장도 지지되었으나, 아르헨티나 물량 부진과 석탄 수요 부족이 추가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

Supramax 부활절이 다가온다

- 상위 선형 대비 대서양 항로의 고평가 및 태평양 역내 석탄 물동량 부진의 영향으로 하락
- 대서양은 USG, 남미 등 주요 곡물 거점의 T/A 선박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파니막스 중심 으로 유입되며 하락 조정
 - 브라질 대비 상대적으로 슈퍼라막스 비중이 높은 아르헨티나의 수요 부진도 약세 요인
- 태평양은 인도네시아 라마단 기간 중 신규 물량 유입 둔화에 더해 중국과 인도의 석탄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나며 하락세 지속
 - 중국은 최근 수력 발전 증가에 따른 석탄 수요 감소가 수입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디아는 전년 동기대비 높은 석탄 재고량으로 인해 몬순 대비 물량 선취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
 - 금주 대서양의 조정이 이어지는 한편, 주초 중국 청명절 연휴와 주 후반 서구권 부활절 연휴에 따른 활동성 부진으로 전반적인 약보합세 지속 전망



원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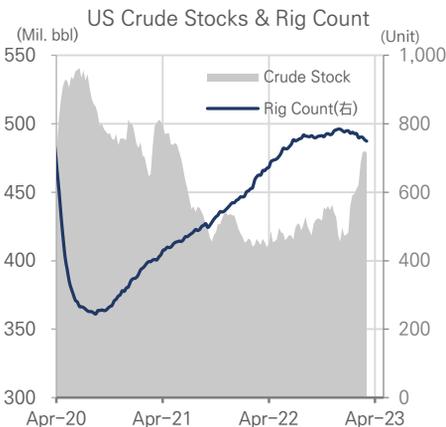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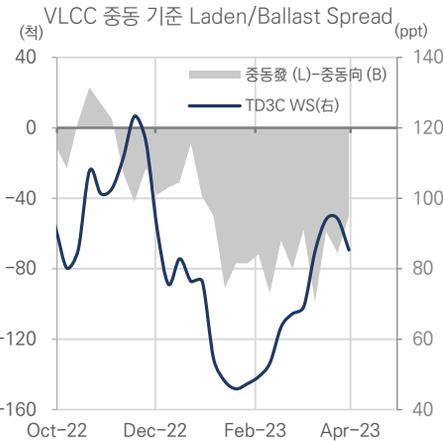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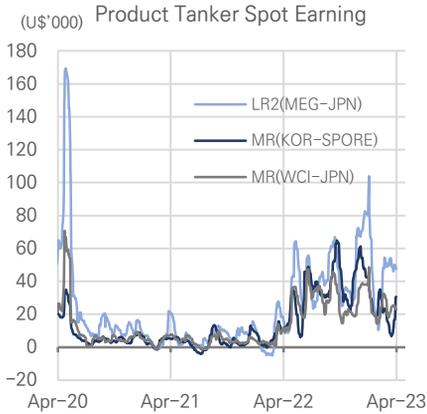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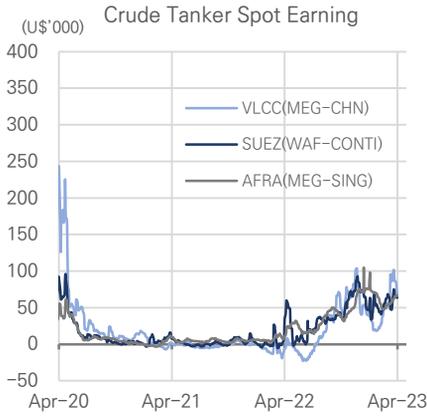
- VLCC: 전수역 활동성 둔화 및 가용 선박 증가로 인해 중동/중국 구간 WS 주간 12% 하락 - 중국은 3월 개시한 44만 b/d 상당의 국영정유사 정제시설 유지보수에 이어 4월 68만 b/d 정제시설 유지보수 추가 돌입. 올해 상반기 유지보수 대상은 총 207만 b/d 수준으로 추산 - 3월 하순 이후 WS 하락폭이 20% 상회하며 선주를 관망세도 확대. 단기시황 약보합 전망
- Suezmax: WAF/유럽 구간 제한된 화물 유입에도 긴급 대체 성약 발생하며 시황 보합 마감 - 상위선형 조정 및 파업에 따른 유럽 원유 하역작업 차질은 하방압력. 단기시황 약보합 전망
- Aframax: 수에즈 동부 가용 선박 감소 및 동남아 역내 신규 화물 유입에 중동/싱가포르 구간 시황 소폭 상승. 다만 이라크 북부 수출 감소에 따른 지중해 시황 약세는 추가 상승 제한 요인

제품선

- LR: 차익거래에 따른 수에즈 동부 선박 공급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동/일본 구간 물동량 둔화 지속에 시황 하락. 3월 이후 BTX/납사 Spread 확대에 따른 납사 물동량 회복 기대감 유입
- MR: 미주-호주항 수출 증가에 따른 동북아역내 선박 공급 감소 및 꾸준한 화물 유입에 한국/동남아구간 운임 주간 51% 급등. 유지보수에 따른 물동량 둔화 전망은 추가 상승 제한 요인

	VLCC (MEG-China)	Suezmax (WAF-Cont.)	Aframax (MEG-SGP)	LR2 (MEG-JPN)	MR (KOR-SGP)*
WS	79.36 ▼ 11.00	138.82 ▼ 2.11	230.07 ▲ 6.14	179.38 ▼ 4.68	26.17 ▲ 8.80
TCE (US\$/day)	70,442 ▼ 16,003	63,612 ▼ 3,297	67,530 ▲ 1,959	47,623 ▼ 2,325	30,512 ▲ 14,307

※ MR(KOR-SGP) 운임: US\$/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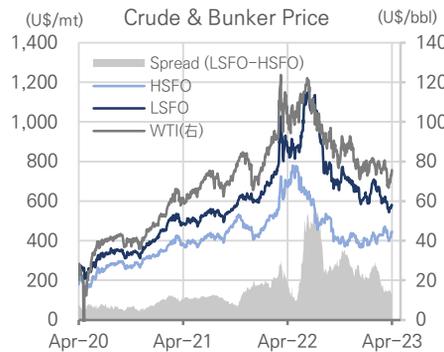


국제유가

- 이라크 북부 지역 원유 공급 차질 장기화 및 미국 원유 재고 감소에 주간 WTI 9.3% 상승 - 이라크령 쿠르드 자치정부의 원유 수출 중단 장기화(45만 b/d, 3.25일~). 튀르키예를 통한 쿠르드 자치정부의 원유 수출은 이라크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중재 결정에 따라 이라크 승인 결정까지 공급 차질 불가피. 다만 협의를 통해 4.3일 전후 수출 재개될 것으로 관측
- 미국 원유 상업 재고는 주간 749만 배럴 감소. 2년 만에 최저치 기록하며 유가 상승폭 확대 - 원유 생산과 순수입이 각각 10만, 50만 b/d 감소하고 정제가동률은 1.7% 상승하며 재고 감소 야기. 재가동 정제설비 유입 증가하며 정제가동률은 3개월 만에 90% 상회
- OPEC+ 회원국들은 '22.10월 200만 b/d 감산 결정에 이어 116만 b/d 상당의 추가 감산 계획 발표(4.2일). 러시아도 자체 50만 b/d 감산 기한 연장. 유가 상승압력으로 작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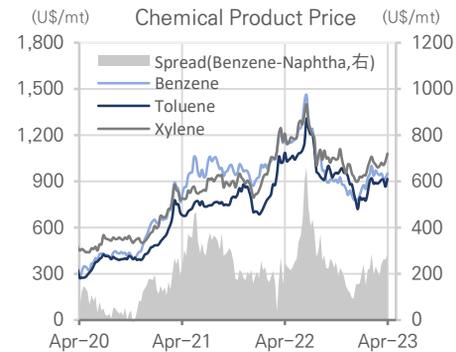
연료유가

- 싱가포르 LSFO, HSFO 가격은 각각 주간 2.4%, 7.2% 상승. 해상 저장 중인 LSFO 재고는 증가한 반면 HSFO는 러시아와 중동의 수출 둔화에 재고 감소. 유종 간 Spread 축소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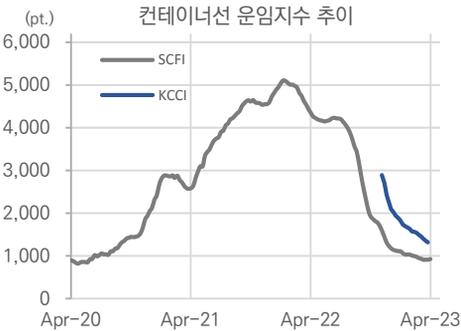
	WTI	HSFO	LSFO	Spread
가격*	75.67	446.00	578.00	132.00
증감	▲ 6.41	▲ 30.00	▲ 13.50	▼ 16.50

※ Bunker Price : Singapore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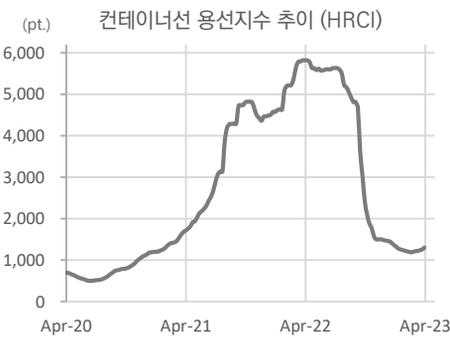
	Benzene	Toluene	Xylene
가격	950 ▲ 30	915 ▲ 50	1080 ▲ 50
Spread*	287 ▲ 26	252 ▲ 46	417 ▲ 46

※ Spread : Naphtha 대비 편차



	'23.3.31.	'23.3.24.	증감
SCFI	923.78	908.35	▲ 15.43
美서안	1,148	1,155	▼ 7
美동안	2,010	2,038	▼ 28
유럽	863	884	▼ 21
지중해	1,602	1,606	▼ 4
동남아	199	194	▲ 5
중동	1,040	894	▲ 146
호주	318	324	▼ 6
남미	1,721	1,422	▲ 299
日서안	319	318	▲ 1
日동안	329	327	▲ 2
한국	186	188	▼ 2
동서Africa	2,609	2,725	▼ 116
남Africa	1,756	1,860	▼ 104

*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선형 (TEU)	건조*	기간	\$/Day	+/-**	성약주차
700	A	7개월	10,000	▼ 1,000	3월3주
1,100	A	12개월	14,000	▲ 500	3월3주
1,600	A	3개월	14,500	▼ 2,250	3월3주
2,200	A	8개월	17,500	▼ 3,500	2월4주
2,700	A	24개월	22,500	▲ 6,000	3월3주
5,000	A	7개월	19,000	▼ 2,000	3월3주
5,500	B	12개월	25,000	▲ 5,000	2월2주
7,000	A	60개월	44,000	▲ 22,500	9월2주
9,000	A	24개월	47,000	▲ 2,750	3월2주

* A: '05년 이후 / B: '01~'05년 / C: '01년 이전
** 직전 성약 대비

종합 중동, 남미 항로 운임 급등하며 SCFI 상승

- 공급 조절에 따른 소식을 개선 효과로 중동 및 남미항로 운임이 전주대비 각각 16%, 21% 상승하며 종합지수 반등. 단, 유럽 및 북미항로 등 주요 기간항로 약세는 계속
- 3월 한달 총 16.2만TEU의 신조 컨테이너선 인도. 최근 인도된 MSC의 24,000TEU 신조선 2척을 비롯해 2분기부터 주요 선사들의 초대형선 인도가 이어질 예정이므로 공급 압력 지속 전망

미주항로 美 서안 9주 연속, 동안은 43주 연속 하락

- 수요 둔화 영향으로 LA항의 2월 물동량은 49만TEU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 롱비치항 또한 54만TEU를 기록하며 32% 감소. 나이키, 아디다스 등 현지 주요 소매업체들은 작년 부터 축적된 재고 소진을 위한 노력 지속 중
- 서부항만 노사협약은 교착 상태. 결과적으로 '22년 LA/LB항 물동량은 전년 대비 5.3% 감소한 반면, NY/NJ항은 5.3% 증가. 한편, 최근 화주 단체들은 서부항만 노사협약과 관련하여 백악관에 개입을 요청

유럽항로 유럽항로 재하락, 공급 부담 증가

- 수요가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조절만으로 시장의 반등을 이끌기에는 역부족, 유럽/지중해항로 동반 하락. 3월 공급조절 영향으로 혼조세를 보였으나 대형선 인도 여파로 4월 운임 약세 전망
- 프랑스, 독일의 강도 높은 파업으로 인해 항만, 내륙 운송 등에서 악영향 발생 중. 현재 터미널 내 대기시간 증가 및 선박 접안, 철도 운송 지연이 발생하며 불확실성 증가

연근해/기타 동남아 항로 5주 연속 상승

- 중국발 동남아항은 물량 회복으로 인한 상승세, 반면 한국발은 공급 부담으로 경쟁 심화
- 베트남은 1분기 GDP 성장률 3.3% 기록, 이는 최근 12년 중 코로나 직후('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 정부 목표치(5.6%) 및 전분기(5.9%)를 모두 밑돌며 세계 경제 둔화의 여파가 동남아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

KCCI (KOBIC Container Composite Index)

Group	Code	Route	Weight	'23.4.3.	'23.3.27.	증감	
종합지수	KCCI			1,229	1,317	▼ 88	
Mainlane 원양항로	KUWI	USWC	북미서안	15.0%	1,217	1,218	▼ 1
	KUEI	USEC	북미동안	10.0%	2,151	2,249	▼ 98
	KNEI	Europe	북유럽	10.0%	1,405	1,428	▼ 23
	KMDI	Mediterranean	지중해	5.0%	2,437	2,545	▼ 108
Non- Mainlane 중장거리항로	KMEI	Middle East	중동	5.0%	1,695	1,727	▼ 32
	KAUI	Australia	오세아니아	5.0%	812	917	▼ 105
	KLEI	Latin America East Coast	중남미동안	5.0%	1,662	1,638	▲ 24
	KLWI	Latin America West Coast	중남미서안	5.0%	1,812	1,877	▼ 65
	KSAI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2.5%	2,268	2,670	▼ 402
	KWAI	West Africa	서아프리카	2.5%	2,226	2,425	▼ 199
Intra Asia 연근해항로	KCI	China	중국	15.0%	156	244	▼ 88
	KJI	Japan	일본	10.0%	508	717	▼ 209
	KSEI	South East Asia	동남아	10.0%	823	938	▼ 115

* 부산항 선적, 해상 수출 SPOT 운임, USD, 전 항로 40FT Dry Container 기준

『독일, 프랑스 파업, 해운 공급망 불확실성 증가』(로이드리스트_23.3.28)

- 독일과 프랑스 주요 노조는 임금인상 및 연금개혁 등을 사유로 파업을 단행. 항만 노동자까지 파업에 동참하면서 물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증가. 독일은 함부르크항 도선사 파업으로 입출항이 막혀 컨선 입항 대기가 발생했으며 철도 파업까지 더해지며 향후 화물 이동 지연 발생 예상. 프랑스도 르하브르항에서 선박 대기 발생. 4월 부터는 부활절 연휴에 돌입함에 따라 내륙 운송 지연이 심화될 가능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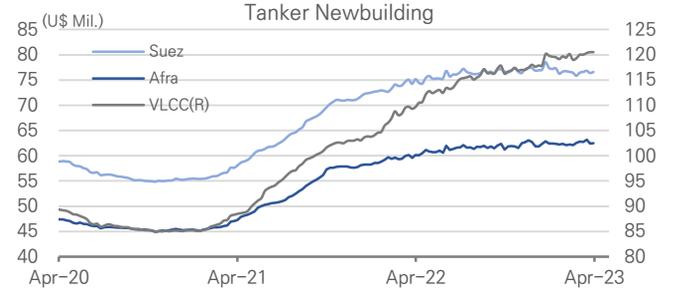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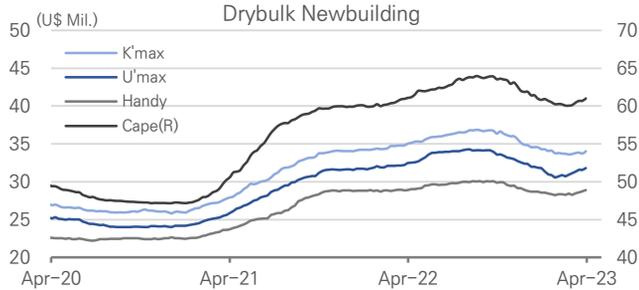
『북미 수입량 감소 지속, 4월 중국발 북미항로 임시결항 확대』(JOC_23.3.29)

- 북미 수입량 감소에 따라 선사들은 4월 약 44만TEU, 50항차에 달하는 중국발 운항에 대해 임시결항을 결정. 미국의 2월 중국발 수입량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64만TEU 이며 4월에도 수요 약세 및 임시결항 증가로 처리량 약세 예상. 한편, 올해 전체 선대가 전년 대비 9% 증가함에 따라, 임시결항에 따른 공급조절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Sale & Purchase

Newbuilding & Re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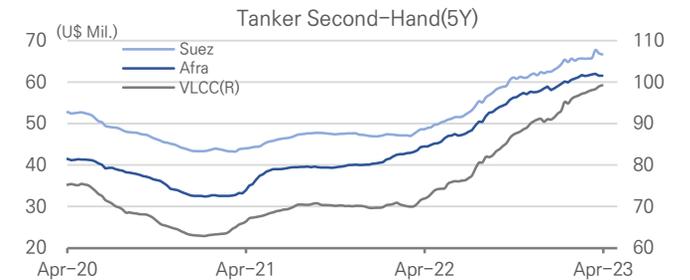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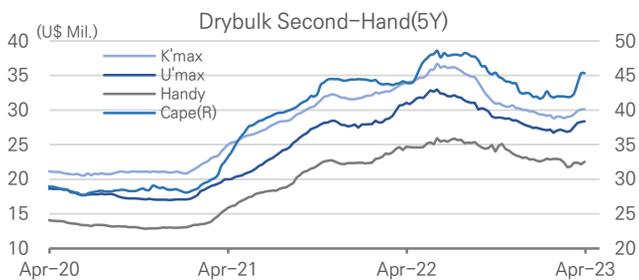
Type	DWT	Newbuilding				Resale				
		금주	+/-	'23평균	'22평균	금주	+/-	'23평균	'22평균	
Drybulk	Cape	180K	61.01	▲ 0.31	60.47	62.15	59.01	▲ 0.76	55.58	59.32
	Kamsarmax	82K	34.01	▲ 0.30	33.84	35.57	36.83	▲ 0.17	36.13	39.47
	Ultramax	64K	31.80	▲ 0.24	31.10	33.05	35.44	▲ 0.03	34.87	37.23
	Handy	33K	28.88	▲ 0.14	28.45	29.36	29.06	▲ 0.09	28.31	29.86
Tanker	VLCC	310K	120.50	-	119.78	113.45	124.70	▲ 0.09	123.47	106.21
	Suezmax	160K	76.59	▲ 0.19	76.61	75.73	84.31	▲ 0.08	83.90	74.28
	Aframax	105K	62.50	▲ 0.07	62.45	61.08	73.57	▲ 0.27	73.34	63.10



Type	Size	Buyer	Builder	Price	No.	Delivery	Remarks
Tanker	115,000 DWT	Metrostar	Hyundai Vietnam SB	\$67.5m	1	'26	-
PCC	9,300 CEU	China Merchants Shipping	CMHI (Jiangsu)	-	2+4	'25-'26	Methanol Capable
LNG	174,000 CBM	Capital Gas	Hyundai Samho HI	\$259.5m	2	'27	-

Secondhand

Type	DWT	5 Years Old				10 Years Old				
		금주	+/-	'23평균	'22평균	금주	+/-	'23평균	'22평균	
Drybulk	Cape	180K	45.33	▲ 0.04	42.71	38.08	30.38	▲ 0.48	28.42	27.54
	Kamsarmax	82K	30.13	▲ 0.04	29.32	27.60	22.19	▲ 0.08	21.39	19.46
	Ultramax	64K	28.38	▲ 0.09	27.36	23.40	19.81	▼ 0.02	19.10	16.54
	Handy	33K	22.52	▲ 0.36	22.53	18.52	15.67	▲ 0.40	15.20	12.29
Tanker	VLCC	310K	99.24	▲ 0.27	96.87	68.22	73.55	▼ 0.11	72.46	45.96
	Suezmax	160K	66.66	▼ 0.25	65.76	45.99	53.09	▲ 0.18	51.34	30.59
	Aframax	105K	61.56	-	61.05	37.58	49.63	▲ 0.05	48.36	24.03



Type	Vessel	Size	Built	Builder	Price	Buyer
Tanker	COSBRIGHT LAKE	299,079 DWT	2003	Nantong COSCO KHI	\$39.5m	Far Eastern interests
Tanker	NORVIKEN	37,874 DWT	2010	Hyundai Mipo	\$22m	Clients of Viken Shipping
Bulker	SUPER ODEGAARD	55,628 DWT	2011	Mitsui SB (Tamano)	\$18m	Greek buyers

Scrap Price



	India				Bangladesh			
	금주	+/-	'23평균	'22평균	금주	+/-	'23평균	'22평균
Bulker	570	-	547	585	610	-	552	588
Tanker	580	-	557	595	630	-	566	598

용어	해설
공선	선박이 화물을 선적하지 않은 상태
내로우빔 (Narrow Beam)	좁은 선폭의 선박
샤페시 (Chassi)	컨테이너를 탑재하여 일체화되는 트레일러의 대차
와이드빔 (Wide Beam)	넓은 선폭의 선박
용선료	선박을 빌리고(용선) 이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선주에게 지불되는 금액
용선주	선박을 용선하는(대여받는) 자
정시성	정기선의 운항일정 준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공표 일정 대비 실제 운항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
Aframax	재화중량톤(DWT) 8~12만톤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
ARA (Amsterdam-Rotterdam-Antwerp)	유럽의 주요 수출입 항구,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앤트워프의 약자
Ballast	공선 상태에서 선박의 안정성 및 감항성 유지를 위해 해수를 선박에 싣는 행위
Cape	재화중량톤(DWT) 10만톤 이상의 대형 건화물선으로 철광석과 석탄을 주로 운송
CBM (Cubic Meter)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 단위
DWT (Dead Weight Tonnage)	재화중량톤. 선박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최대 무게를 의미
F/H (Front Haul)	다수의 화물수송이 이루어지는 선종별 주 수송구간(건화물선 대서양→태평양)
FE	'철'을 의미하는 ferro의 약어. 보통 철광석의 철분 함량을 표시 (FE 62%)
Feeder	대형 항만과 인근 중소형 항만 간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서비스 또는 선박
FEU (Forty-foot Equivalent Units)	길이 40피트(feet)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 1FEU=2TEU
FFA (Forward Freight Agreement)	운임선도거래. 미래 특정 기간의 운임을 현재 시점에서 확정하여 계약하는 거래
Handy	재화중량톤(DWT) 4만톤 미만의 소형 건화물선
HRC (Hot Rolled Coil)	열연강판. 철 슬라브를 압연하여 생산한 1차 제품으로 냉연강판, 강관 등의 소재로 쓰임
HRCI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호이-로빈슨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HSFO (High Sulfur Fuel Oil)	유황성분의 함량이 0.5% 초과 / 3.5% 이하인 고유황 연료유
Indon	인도네시아
Kamsarmax	재화중량톤(DWT) 8~9만톤 규모의 건화물선
LA/LB (Los Angeles/Long Beach)	미국 서부 대표 항만인 로스앤젤레스-롱비치 항을 의미
LDT (Light Displacement Tonnage)	경화배수톤. 화물을 제외한 선박자체의 중량으로 선박 해체 매각 시 지급하는 선가의 기준
LR2 (Long Range2)	재화중량톤(DWT) 8~12만톤급 유조선으로 주로 석유제품을 운송
LSFO (Low Sulfur Fuel Oil)	유황성분의 함량이 0.5% 이하인 저유황 연료유
MR (Medium Range)	재화중량톤(DWT) 4~6만톤 규모의 유조선으로 석유제품을 운송
Pac RV (Pacific Round Voyage)	태평양 역내를 왕복 운항하는 순환 항로
Panamax	재화중량톤(DWT) 7~8만톤 규모의 건화물선
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관리자지수. 기업의 구매담당자 대상 설문을 통해 제조업 분야의 경기 판단 지표로 사용
Rebar (Reinforcing bar)	철근
SB (ShipBuilding)	조선(소)
SCFI (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Suezmax	재화중량톤(DWT) 12~20만톤급 원유 운반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유조선
T/A (Trans Atlantic)	대서양 역내를 운항하는 항로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s)	길이 20피트(feet)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
Ultramax	재화중량톤(DWT) 6~7만톤 규모의 건화물선
VLCC (Very Large Crude-Oil Carrier)	재화중량톤(DWT) 20만톤 이상 초대형 원유운반선
WS (Worldwide Tanker Nominal Freight Scale)	주요 항로별 기준 운임율(Flat Rate)을 상대지수로 나타낸 지표
WTI (West Texas Intermediate)	서부 텍사스산 원유. 영국 북해의 브렌트유, 중동의 두바이유와 함께 세계 3대 유종

KOBC Drybulk Panelists

	Ildo Chartering		Jangsoo Shipping		Flaship		Ascent Bulk
	Daesang Shipping		Basim Chartering		Max-Bridge		Greatwall International
	Ace Chartering		Kaya Shipping		Interlink		Optima International Shanghai
	M.I.T Chartering & Agency		Good Turn Transportation		Ocean Robin Shipping		
	Howe Robinson Singapore		OHY Shipping		BNS Shipping		

KOBC Tanker Panelists

	Presco International		Reshamwala Shipbrokers		Neostar Maritime		SSY London
	KOEL International		Hans Shipping		Nav Maritime		Seoul Line

KOBC Container Panelists

	Unico Logistics		Pactra International		Eunsan Shipping & Aircargo		Euroline Global
	Taewoong Logistics		Samsung SDS		Hyundai Glovis		Ramses
	CJ Logistics		LX Pantos		Posco Flow		Onnuri Logistics
	Joosung		Sejung Shipping				

KOBC S&P Panelists

	Gyro Maritime		Forocean Shipbroking		Mcquilling		Pioneer Shipbrokers (Vietnam)
	Hanbada Corporation		Wirana Shipping Corporation		Fides Corp.		Harvest Shipbrokers
	Kims Maritime		GMS Korea		Maxmart Shipping & Trading		SSY London
	Haidely Shipping		STL Shipping		HIT Marine Company		Reshamwala Shipbrokers
	Seasure Shipbroking						